

알아야 이집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땅 반환을 요구하는 암몬 왕

12 그리고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신하를 보내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내 땅에 쳐들어와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요?" **13** 암몬 족속의 왕이 입다의 신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르논부터 압복 강까지, 그리고 요단 강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순순히 그 땅을 내놓아라."

·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임을 주장하는 입다

14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신하를 다시 보내

15 그에게 말했습니다. "입다가 말하오. 이스라엘이 모압의 땅이나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요. **16**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홍해까지 이르고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17**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신하를 보내 말하길 '부탁입니다. 내가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소. 그러나 에돔 왕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소. 그들은 또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냈지만 그도 허락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게 된 것이요. **18** 그러고 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강 저쪽에 진을 쳤소. 그러나 아르논 강은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소. **19** 그 후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신하를 보냈소.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소. '부탁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20** 그러나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겠다는 것을 믿지 않았소. 시혼은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야하스에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과 싸웠소. **21**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너뜨렸소.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땅 모두를 차지하게 된 것이요. **22**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에서 압복 강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요단 강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요. **23**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 당신이 그 땅을 가지려는 것이요? **24** 당신은 당신의 신 그모스가 당신에게 준 것을 갖지 않는다는 말ियो?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모든 것을 가질 것이요. **25** 당신이 모압 왕 십불의 아들 발락보다 뛰어납니까? 발락이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에 대항하거나 싸운 적이 있소?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을 따라 있는 모든 성읍들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는 그 땅들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요? **27** 내가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없는데 당신은 나와 전쟁을 일으키며 내게 해를 주고 있소. 심판자인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족속 가운데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지켜봅시다." **28** 그러나 암몬 족속의 왕은 입다가 보낸 말을 무시했습니다.

3 묵상하기

암몬은 이스라엘이 광야생활을 할 때 전쟁에서 이겨 빼앗은 땅입니다. 그런데 암몬 왕은 그 일이 있는 지 무려 300년이나 지나서 그 땅을 돌려달라는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이때 입다가 보여준 대응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는 조상들의 역사를 조목 조목 이야기하며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의 시절을 모두 잊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하나님 백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악한 세력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과 진리를 왜곡하고 비판하는 말들에 의기소침해지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다면 나는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거기에서 나오는 담대함으로 거짓에 맞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찾아오는 영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② 나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일해오신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세상의 억지스러운 요구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담대히 맞서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22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에서 압북 강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요단 강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요.

23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 당신이 그 땅을 가지려는 것이요?

24 당신은 당신의 신 그모스가 당신에게 준 것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모든 것을 가질 것이요.

25 당신이 모압 왕 십불의 아들 발락보다 뛰어납니까? 발락이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에 대항하거나 싸운 적이 있소?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을 따라 있는 모든 성읍들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는 그 땅들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요?

27 내가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없는데 당신은 나와 전쟁을 일으키며 내게 해를 주고 있소. 심판자인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족속 가운데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지켜봅시다."

28 그러나 암몬 족속의 왕은 입다가 보낸 말을 무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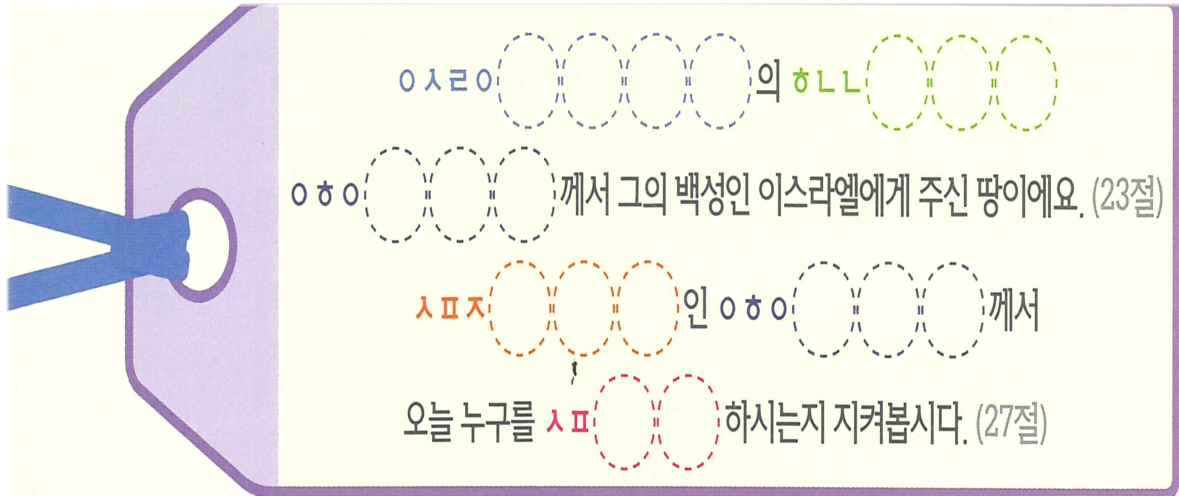
• 궁굼 사전

- * 그모스: 모압과 암몬이 섬긴 신
- * 대항: 굽히지 않고 맞서서 싸우는 것

• 말씀 씨앗

암몬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으로 쳐들어왔어요. 입다는 암몬의 왕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했어요. 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백 년 동안 살고 있었다며 전쟁을 일으킨 암몬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3 말씀 새싹 –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5 말씀 열매 –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집 주변의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
하는 행복한 동네가 되기를 기도해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괴롭히는 나라들을 공정하
게 심판하세요.

6 기도하기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